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의 경향 및 발전방향*

A Review of the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The Trends and Beyond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이연숙**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한지수***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한영선
강사 김하늬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Lee, Yon-Suk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
Adjunct Professor: Han, Jisu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Lecturer: Han, Young-Sun
Lecturer: Kim, Ha-Nui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연구방법	V. 요약 및 논의
III. 연구주제 분류를 위한 선행연구 고찰	참고문헌

* 학회지가 창간된 1997년부터 2008년 12월(12권 4호)까지 12년간 발간된 295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 주저자: 이연숙(yonsuk@korea.ac.kr)

*** 교신저자: 한지수(virtus@chol.com)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from 1997 to 2008, and to identify the contributions as well a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se articles in the field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nalyzed 3 types of research trends: research topic, research method including data analysis, and research subj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tudy shows that most number of researches are conducted on management subjects, followed by management practice and management theory. Secondly, regarding the frequency of the research method, the empirical researches are the most prevalent method employed by the researches, over literature or practice researches. Thirdly, it is noted there are more quantitative researches than qualitative ones. Finally, there are a lot more researches carried out on the traditional household than those of vulnerable households.

Key Words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연구주제(Research topics), 연구방법(Research methods), 자료분석(Data analysis), 연구대상(Research subjects)

I. 서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이하 학회지)는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학문연구와 회원 상호간 전문적 지식 교류를 통하여 가족자원경영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7년 창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학회는 그동안 정관에 따라 ‘연구발표회 및 학술연구활동’, ‘학회지, 회보, 연구서적의 간행’, ‘국내외 학회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조’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다. 1997년 추계 창립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008년 12월까지 22회의 학술대회와 9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학술대회나 워크숍을 국내 다른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관계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과 2007년의 춘계학술대회는 한국가정관리학회와 통합으로 개최하였고 2006년에서 2008년의 워크숍은 한

국가정관리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등 타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또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이하 학회지)는 1997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9년 8월 현재 13권 2호까지 발간되어 왔으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창간호부터 2008년 12월(12권 4호)까지의 학회지에는 총 29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양한 학회 활동 중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은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학문적 성격 및 정체성과 학술활동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창간호가 발행된 이후 2008년 12월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연구대상 등을 분석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의 경향과 발전과정을 파악해 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연구 경향에 관한

분석으로는 먼저 가족자원경영학 분야를 가정학의 하위 영역 중 하나로 보고 대한가정학회지를 분석한 연구(황덕순 외, 1995), 국내의 대표적인 가정학 관련 4개 학회지¹⁾에 발표된 가족자원경영학 분야 논문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를 분석한 연구(정영금, 2000), 한국가정관리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에 게재된 가족자원경영학 분야 논문을 분석한 연구(이승미, 2007) 등이 있다. 그러나 가족자원경영학 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는 학회 창립이후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회 창립 후 2008년까지 12월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연구주제를 분류하고, 이를 기본틀로 연구방법, 자료분석방법, 연구대상 등에 따른 연구경향을 시대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자원경영학 영역의 연구흐름에 나타나는 공통맥락을 찾아보고 본 학문의 사회적 기여와 함께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등과 관련된 연구의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가족자원경영학 연구가 보다 엄밀한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학문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에서 발행

하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의 1997년 창간호부터 2008년 12월 발행된 12권 4호까지 12년간 게재된 논문 295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경험적 연구의 자료분석방법, 연구대상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 때 1997년부터 2002년을 전반기, 2003년부터 2008년을 후반기로 구분하여 시대별 추이를 함께 살펴보았다²⁾.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의 창간호(1997년)부터 12권 4호(2008년 4호)까지 게재된 논문의 시대별 연구주제의 경향은 어떠한가?
2.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의 창간호(1997년)부터 12권 4호(2008년 4호)까지 게재된 논문의 시대별, 연구주제별 연구방법의 경향은 어떠한가?
3.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의 창간호(1997년)부터 12권 4호(2008년 4호)까지 게재된 논문의 시대별, 연구주제별 경험적 연구의 자료분석방법 경향은 어떠한가?
4.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의 창간호(1997년)부터 12권 4호(2008년 4호)까지 게재된 논문의 시대별 연구대상의 경향은 어떠한가?

III. 연구주제 분류를 위한 선행연구 고찰

우선 전체 분석대상 논문 주제를 ‘가족자원경영학’과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는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족자원경영학 분야 본

1)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자학연구

2) 이와 같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 것은 학회지가 발행된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12년 간을 산술적으로 이등분한 결과이다. 어떤 특정 사건 혹은 흐름(예를 들면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등)을 기준으로 그 전후를 구분하는 것도 고려해보았으나 본 분석은 특정 사건의 전후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간된 연구 전반에 걸친 일반적 분석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의 논문과 기타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에 있어서 주제 분류에 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그 연구 범위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이승미,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회지에 게재된 가족자원경영학 분야 논문의 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이승미, 2007; 정영금, 2000)에서의 주제분류를 기본으로 이를 재구성하여 본 연구의 연구주제 분류 틀로 삼고자 한다.

정영금(2000)은 가정학 전체의 논문내용분석에 이용된 ‘관리 분야’의 하위유목(황덕순, 1995)과 가정관리학과 교과모형개발에 이용된 ‘관리 분야’의 교과목(이기영 외, 1993)을 기초로 가족자원경영학을 크게 관리이론, 관리대상, 관리실제,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재구성한 이승미(2007)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두 연구 모두 연구주제를 관리이론, 관리대상, 관리실제로 대분류 하는 것은 일치하고 있으나, 이승미(2007)는 정영금(2000)의 연구에서 관리실제에 포함되었던 가정복지를 따로 분리시키고 여기에 건강가정 관련 연구를 포함하여 공통실천분야를 대분류에 추가하였다.

이렇게 ‘관리실제’와 ‘공통실천’의 두 영역을 분리시킨 이유는, ‘가정복지’ 또는 ‘건강가정’ 주제의 등장이 가정학의 학문적 목표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현장에서 구현해낼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영역으로 분류하고자 함이었다(이승미, 2007). 그러나 이는 정영금(2000)이 관리실제를 ‘직업분야에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인 영역’이라고 한 점과 ‘학문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이승미연구에서 ‘관리실제’에 포함된 ‘공

공가정’관련 분야는 공공가정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개발하여 학문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도입된 영역이라는 점을 볼 때 ‘가정복지’나 ‘건강가정’ 등의 영역과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리실제와 공통실천 분야를 ‘관리실천’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였다. 여기에 일반 가정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실천되는 관리영역에 관한 ‘교육’ 부분도 관리실천 영역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주제를 크게 관리이론, 관리대상, 관리실천,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에 속하는 중분류, 소분류에 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첫째로, ‘관리이론’은 가족자원관리활동을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하위영역이 포함된다. 우선 가족자원관리를 투입-과정-산출-피드백의 역동적 과정으로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 틀인 체계적 접근법(Systems approach)에 입각하여 관리행동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관리체계 및 가정관리행동, 관리과정 전체에 나타나는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이 포함되며, 체계적 접근법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들, 즉 투입에 해당하는 가치관 및 가족자원, 산출로서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도 포함된다. 또한 체계적 접근법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기 위한(이승미, 2007) 생활설계와 이를 위한 실태연구 역시 관리이론의 영역이다.

둘째로, ‘관리대상’에는 일반적으로 관리 ‘대상’으로서의 가족자원으로 분류되는 노동, 시간, 재무 관련 논문들이 포함되었다. 노동은 세부적으로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으로 나누어지므로 각각에 관련된 논문들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여성의 취업노동참여, 그에 따른 남성의 가정노동 참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일·가정양립에 관한 논문들이 포함된다. 여기에 주 5일 근무제 이후 중요한 이슈가 되

〈표 1〉 연구주제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족 자원 경영	관리 이론	가치관	가치관
		자원	가족자원
		관리체계 및 가정관리행동	관리체계, 가정관리행동, 의사결정, 의사소통
		생활의 질	생활의 질
		생활설계	가정생활설계
	관리 대상	가사노동	가사노동 분담, 가사노동 사회화, 가사노동 가치 및 평가
		취업노동	취업노동, 직무만족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
		생활시간	가사노동시간, 취업노동시간, 여가시간, 생활시간, 시간만족
		여가	활동, 만족, 정책, 여가태도, 여가전체
		가계경제, 재무관리	소비패턴/지출, 재무관리, 재무설계 및 상담, 재정문제, (재정)경제 만족도
	관리 실천	건강가정	가정의 건전도(건강성),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지원센터관련, 센터관련 프로그램
		공공가정	공공가정관련 이론, 공공가정관리사
		가정복지사	가정복지사
		가족기업, 재택근무	가족기업, 재택근무, 여성기업
		관리교육	중고생교육, 대학생교육, 성인교육, 가정교육
	기타	가정의례, 풍속	
		기타	
	기타	소비자	소비자문제/만족/불만족,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구제 및 상담, 소비가치와 문화, 소비자행동
		아동·가족학	아동학, 가족학
주거학		주거학	

어 온 여가활동 관련 논문들도 하나의 영역으로 중분류하여 관리대상에 포함되었다.

셋째로, ‘관리실천3)’은 ‘연구결과의 사회화’라는 기준으로(정영금, 2000) 실천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새로운 직업적 모색이나 실천현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족기업, 재택근무, 공공가정, 가정복지, 건강가정 관련 연구를 포함하였다. 또한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관리교육(중·고·대학생 교육, 성인교육프

로그램)연구 역시 관리실천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연구들과 가정생활에 관한 사적고찰, 혼례, 제례, 예절 등에 관한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주제별로 논문들을 분류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연구주제들에 대해서는 해당논문의 연구 목적과 내용을 확인한 후 본 논문의 저자 4인 간의 논의 및 선행연구의 분류(이승미, 2007; 정영금, 2000) 등을 토대로 다음과

3) 관리실천 영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210 참고

같이 조정되었다. 우선 관리이론에서의 ‘자원’과 관리 대상에서의 ‘자원’ 분류에 관한 것이다. 전자에는 가족자원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예: 윤소영(2003), ‘주5일 근무제와 가족자원의 변화’)가 포함되었으며 후자에는 자원을 구체적 관리대상별로 구분하여 수행된 연구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관리이론 부분에 대하여 현재 가족자원경영학에서 이론적 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체계적 접근법의 체계요소를 고려하면서 대상별 관리 연구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주제를 구분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생활시간 연구는 가사노동, 취업노동, 여가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와 가사노동시간, 취업노동시간, 여가시간 관련 연구에서 중복된다. 이러한 경우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 연구가 가정학 내에서 가족자원경영학의 고유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관련 연구를 모두 생활시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시간 연구는 ‘가사노동’과 ‘생활시간’의 두 개 중분류 영역에 중복되어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 ‘생활시간’ 영역으로 포함된다.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연구주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논문을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가정관리행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생활만족도 쪽으로 포함시켰다.

IV. 연구결과

1. 연구주제 경향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주제별, 시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295편의 논문 중 가족자원경영학 분야 논문이 248편(84.1%), 소비자학 분야가 37편(12.5%), 아동·가족학 분야 5편(1.7%), 주거학 분야가 5편

(1.7%)이었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관리대상에 관한 연구가 104편(4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리실천에 관한 연구 63편(25.4%), 관리이론에 관한 연구 55편(22.2%), 기타 26편(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리이론에 관한 연구(55편) 중, 생활의 질과 관련된 연구(24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리체계 및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14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관리이론 분야 연구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줄어든 가운데 생활실체에 관한 연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대상에 관한 연구(104편) 중, 가계경제·재무관리에 관한 연구(43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가(19편), 생활시간(13편)에 관한 연구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리대상의 세부영역별 연구 추이를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생활시간, 여가 관련 연구는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증가하고 있었으며, 가계경제·재무관리 분야는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에 관하여는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에 따른 가정생활책임 공백 및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발생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으로 인하여 그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생활실태분석의 기초가 되는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그에 맞추어 1999년부터 5년 단위로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생활시간연구가 활성화되었고,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증가하는 여가시간 활용 및 활동에 관한 연구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계경제·재무관리 분야 연구가 감소한 것은 1997년 12월 외환 경제위기 이후 가계의 재무관리 및 설계 등에 관한 사회적 요구

〈표 2〉 시대에 따른 연구주제별 논문게재편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97~'02	'03~'08	총계(n, (%)) (%)	
가족 자원 경영	관리 이론	가치관	가치관	7	2	9(3.1)
		자원	가족자원	1	2	3(1.0)
		관리체계 및 가정관리행동	관리체계, 가정관리행동, 의사결정, 의사소통	9	5	14(4.7)
		생활의 질	생활의 질	14	10	24(8.1)
		생활설계	가정생활설계	1	4	5(1.7)
	계			32	23	55(18.6) (22.2)
	관리 대상	가사노동	가사노동 분담, 가사노동 사회화, 가사노동 가치 및 평가	7	5	12(4.1)
		취업노동	취업노동, 직무만족	3	4	7(2.4)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	1	9	10(3.4)
		생활시간	가사노동시간, 취업노동시간, 여가시간, 생활시간, 시간만족	2	11	13(4.4)
		여가	활동, 만족, 정책, 태도, 여가전체	7	12	19(6.4)
	가계경제, 재무관리	소비패턴/지출, 재무관리, 재무설계 및 상담, 재정문제, (재정)경제 만족도	29	14	43(14.6)	
	계			49	55	104(35.3) (41.9)
	관리 실천	건강가정	가정의 건전도(건강성),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지원센터관련, 센터관련 프로그램	2	28	30(10.2)
		공공가정	공공가정관련 이론, 공공가정관리사	6	2	8(2.7)
		가정복지사	가정복지사		1	1(0.3)
		가족기업, 채택근무	가족기업, 채택근무, 여성기업	9	4	13(4.4)
		관리교육	중·고·대학생교육, 성인교육(프로그램), 가정교육	3	8	11(3.7)
	계			20	43	63(21.4) (25.4)
	기타	가정의례, 풍속		6	7	13(4.4)
		기타		5	8	13(4.4)
	계			11	15	26(8.8) (10.5)
	소계			112 (45.2)	136 (54.8)	248(84.1) (100.0)
	기타	소비자	소비자문제/만족/불만족,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구제 및 상담,	8	29	37(12.5)
		아동·가족학	아동학, 가족학		5	5(1.7)
주거학		주거학	1	4	5(1.7)	
소계			9 (19.1)	38 (80.9)	47(15.9) (100.0)	
총계			121 (41.0)	174 (59.0)	295 (100.0)	

가 증가하면서 가계경제 관련 연구가 급증하다가 한국경제가 IMF관리 체제를 벗어나게 되고, 가계경제 및 재무관리를 주된 연구영역으로 다루는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가 감소하였다는 한국가정관리학회지의 논문 동향 분석 결과(정순희, 2007)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관리실천에 관한 연구(63편)는 건강가정에 관한 연구가 47.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족기업, 재택근무(20.6%), 관리교육(17.5%), 공공가정(8.2%) 관련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관리실천의 세부영역별 연구추이를 보면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가 후반부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입법을 추진하였고, 이후 건강가정사가 도입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장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건강가정’ 영역에 관한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실천을 이끌었던 가족자원경영학 영역에서의 연구 요구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성인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된 관리교육 분야의 증가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에 의하여 후반기에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공공가정관련 연구와 가족기업, 재택근무에 관한 연구는 후반기에 감소하였다.

2. 연구방법 경향

1) 시대에 따른 연구방법 경향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방법 경향을 파악하고자 논문을 이론적 연구, 경험적 연구, 실천적 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 연구에는 문헌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경험적 연구는 실제 연구 대상을 조사한 자료로 수행된 연구로 구성되었고 실천적 연구에는 실천 현장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포함되었다. 시대에 따른 연구방법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경험적 연구가 72.2%로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론적 연구가 22.4%로 그 다음 순위였고, 실천적 연구는 5.4%로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 논문 게재 편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실천적 연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실천적 연구의 대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였다. 이는 연구주제별 흐름에서 설명하였듯이 2004

(표 3) 시대에 따른 연구방법별 논문게재편수

(단위: n (%))

분류		'97~'02	'03~'08	총 계
이론	문헌연구	29(9.9)	37(12.5)	66(22.4)
	2차 자료	9	21	30(10.2)
경험	설문조사	77	81	158(53.6)
	설문+면접	3	7	10(3.4)
	면접 사례	2	12	14(4.7)
	기타 (실험 등)	0	1	1(0.3)
	계	91(30.8)	122(41.4)	213(72.2)
	실천	프로그램	1(0.3)	15(5.1)
총계		121(41.0)	174(59.0)	295(100.0)

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연구 증가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 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족자원경영학분야의 연구가 경험 연구에 치우치며 그 중에서도 설문지법 한 가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승미, 2007; 정순희, 2007; 정영금, 2000)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경험연구 중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약간 증가하였으나 설문지법에 면접법을 부가한 연구가 후반기에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2차 자료와 심층 면접을 이용한 연구들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설문지법 의존 정도가 감소하면서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꾀하기 위한 노력들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된 연구가 전체 논문의 10.2%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우리나라 자료의 경우 생활시간조사(통계청), 도시가계연보(통계청), 한국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저축중앙위원회의 자료 등이 사용되었으며 그밖에 미국과 일본의 2차 자료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2)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방법 경향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방법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관리이론에 관한 연구(55편) 중 경험연구가 45편(81.8%)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경험연구의 대다수가 설문조사(41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대상에 관한 연구(104편) 역시 경험연구가 86편(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중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가 많았는데, 다른 대분류 영역에 비해 2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계경제·재무관리 분야에서 2차 자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국내 자료와 국외 자료가 모두 포함되었다. 국내 자료로는 도시가계연보(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저축추진중앙위원회자료, 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한국노동연구원) 등 다양한 자료가 이용되고 있었으며 국외 자료로는 일본의 가계조사연보, 미국의 위스콘신종단조사(Wisconsin Longitudinal Study), 소비자재무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 등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계경제·재무관리 분야에서 2차 자료 이용 연구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이용 가능한 2차 자료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생활시간 영역의 2차 자료 이용 연구에서는 모두 1999년 이후 5년 주기로 조사되어온 국민생활시간조사(통계청)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은 가계경제·재무관리뿐 아니라 생활의 질, 취업노동, 가족기업 및 재택근무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계에서 널리 이용되는 한국노동패널은 우리 학문 영역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이용가능하다고 하겠다. 2007년부터 배포된 고령화연구패널도 가계경제·재무관리 분야와 생활의 질 부분에서 이용되고 있었는데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생활을 담고 있으므로 그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관리실천에 관한 연구(63편)는 다른 대분류 연구에 비해 문헌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4.9%로 높았는데 이는 ‘공공가정’, ‘건강가정’ 등 새로운 연구 영역이 도입되어 이를 사회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각 주제에 대한 개념 확립, 실천 과정 구성 등의 연구가 필요한 데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분류 영역의 특성상 관리실천 분야에서는 실천 연구

〈표 4〉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방법별 논문게재편수

(단위: n%)

대분류	중분류	문헌	경험					실천	총계	
		문헌	2차	설문	설문 + 면접	면접· 사례	기타	프로그램		
가족 자원 경영	가치관	5		4					9(3.1)	
	자원			3					3(1.0)	
	관리체계 및 가정관리행동	2		10			1	1	14(4.7)	
	생활의 질		3	21					24(8.1)	
	생활설계	2		3					5(1.7)	
	계	9	3	41			1	1	55(18.6)	
	관 리 대 상	가사노동	3		7			2		12(4.1)
		취업노동	2	2	2			1		7(2.4)
		일·가정양립	6		2	1	1			10(3.4)
		생활시간		3	9	1				13(4.4)
		여가	6	2	10	1				19(6.4)
		가계경제·재무관리	1	16	25	1				43(14.6)
	계	18	23	55	4	4			104(35.3)	
	관 리 실 천	건강가정	8		6	2	4	1	9	30(10.2)
		공공가정	7			1				8(2.7)
		가정복지사			1					1(0.3)
		가족기업, 재택근무	5	2	5	1				13(4.4)
		관리교육	2		2	1			6	11(3.7)
	계	22	2	14	5	4	1	15	63(21.4)	
	기 타	가정의례, 풍속	4		9					13(4.4)
기타		6		4	1	2			13(4.4)	
계		10		13	1	2			26(8.8)	
소계		59 (23.8)	28 (11.3)	123 (49.6)	10 (4.0)	11 (4.4)	1 (0.4)	16 (6.5)	248(84.1) (100.0)	
기타	소비자	4	2	30			1		37(12.5)	
	아동·가족			3			2		5(1.7)	
	주거	3		2					5(1.7)	
소계		7 (14.9)	2 (4.3)	35 (74.5)		3 (6.3)			47(15.9) (100.0)	
총계		66 (22.4)	30 (10.2)	158 (53.6)	10 (3.4)	14 (4.7)	1 (0.3)	16 (5.4)	295 (100.0)	

인 프로그램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1) 경험적 연구의 시대에 따른 자료분석방법 경향

3) 경험적 연구의 자료분석방법 경향

여기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 중 연구방법 상 문헌연구(n=66)와 실천연구(n=16)를 제외한 213편의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분석방법을 살펴보았다. 경험적 연구만을 따로 구분하여 자료분석방법을 살펴본 이유는 12년간의 학회지 게재 논문의 연구방법 분석결과 70% 이상이 경험적 연구로 수행되었으며 또한 경험적 연구에는 다양한 자료분석방법이 포함되므로 이를 정리해 보는 것이 의미있는 작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경험적 연구의 시대에 따른 자료분석방법 경향은 <표 5>와 같다. 양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많은 논문의 경우 자료분석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최종 결과를 도출한 방법(최종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을 해당 논문의 주된 분석방법으로 간주하여 수량화하였다. 그런데 군집분석, 요인분석, 판별분석 등을 이용한 논문의 경우 이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기술통계나 추리 통계 등 후속 분석 작업이 이루어진 논문이 많았으며 이때에는 군집·요인·판별 분석

<표 5> 경험적 연구의 시대에 따른 자료분석방법별 논문게재편수

(단위: n(%))

분류		'97~'02	'03~'08	총계			
				n	(%)		
경험 연구	양적 방법	기술통계		6	8	14 (6.6)	
		추리 통계	$\chi^2 \cdot t$ ·분산	10 (4) ¹⁾	39 (11)	49 (15)	(23.0)
			상관	5 (2)	5	10 (2)	(4.7)
			회귀	45 (4)	40 (4)	85 (8)	(39.9)
			경로	11 (2)	2	13 (2)	(6.1)
			Logit·Probit·Tobit 등	9 (2)	14	23 (2)	(10.8)
			요인·군집·판별	0	2	2	(0.9)
			기타	3	0	3	(1.4)
	계	83 (14)	102 (15)	185 (29)	(86.9)		
	소계		89 (44.7)	110 (55.3)	199 (100.0)	(93.4)	
질적방법	심층면접, 사례연구	2 (14.3)	12 (85.7)	14 (100.0)	(6.6)		
총계		91 (42.7)	122 (57.3)	213 ²⁾ (100.0)	(29)		

주: 1) ()안은 군집분석이나 요인분석이 선행된 후 해당 분석이 실시된 경우, 예를 들어 $\chi^2 \cdot t$ ·분산의 셀에 10(6)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chi^2 \cdot t$ ·분산 분석을 한 논문은 총 10편이며 그 중 6편은 군집분석이나 요인분석 후 $\chi^2 \cdot t$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의미임.

2) 총 295개의 분석논문 중 문헌연구(n=66)와 프로그램(n=16) 논문의 경우는 특별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해당 분석에서 제외함.

〈표 6〉 경험적 연구의 연구주제에 따른 자료분석방법별 논문게재편수

(단위: n(%))

대분류	중분류	기술 통계	양적방법						면접, 사례	총계 (n)	(%)		
			추리통계										
			$\chi^2 \cdot t \cdot$ 분산	상관	회귀	경로	Logit · Probit · Tobit	요인 · 군집 · 판별				기타	
가 족 자 원	가치관		3					1			4	(1.9)	
	자원		2(1) ¹⁾					1			3(1)	(1.4)	
	관리체계 및 가정관리행동		1(1)	1(1)	7(1)				1	1	11(3)	(5.2)	
	생활의 질		1	1(1)	18(3)	2(1)		1		1	24(5)	(11.3)	
	생활설계		1		2						3	(1.4)	
	계		8(2)	2(2)	27(4)	2(1)		3		2	45(9)	(21.1)	
	가사노동		2	2(1)		3				2	9(1)	(4.2)	
	취업노동		1			3				1	5	(2.3)	
	일·가정양립		1	1		1				1	4	(1.9)	
	생활시간		3	4	1	2(1)			2	1	13(1)	(6.1)	
여가		1	2(1)	3	7(1)					13(2)	(6.1)		
가계경제/재무관리		3	7(1)	1	18	5(1)		8(1)			42(3)	(19.7)	
계		11	16(3)	5	34(2)	5(1)		10(1)	1	4	86(7)	(40.4)	
경 영	건강가정		3	4		2				4	13	(6.1)	
	공공가정					1					1	(0.5)	
	가정복지사			1							1	(0.5)	
	가족기업·재택근무					3			4	1	0	8	(3.8)
	관리교육			1	1				1			3	(1.4)
	계		3	6	1	6			5	1	4	26	(12.2)
기 타	가정의례, 풍속			4(1)	1	2	2					9(1)	(4.2)
	기타			3(3)		1			1(1)		2	7(4)	(3.3)
	계			7(4)	1	3	2		1(1)		2	16(5)	(7.5)
소계			14 (8.1)	37(9) (21.4)	9(2) (5.2)	70(6) (40.5)	9(2) (5.2)	19(2) (11.0)	1 (0.6)	3 (1.7)	11 (6.4)	173(21) (100.0)	(81.2)
기 타	소비자			12(6)		12(1)	4	3	1		1	33(7)	(15.5)
	아동·가족학				1	1			1		2	5	(2.3)
	주거학					2(1)						2(1)	(0.9)
소계				12(6) (30.0)	1 (2.5)	15(2) (37.5)	4 (10.0)	4 (10.0)	1 (2.5)		3 (7.5)	40(8) (100.0)	(18.8)
총계			14 (6.6)	49(15) (23.0)	10(2) (4.7)	85(8) (39.9)	13(2) (6.1)	23(2) (10.8)	2 (0.9)	3 (1.4)	14 (6.6)	213 ²⁾ (29) (100.0)	(100.0)

주: 1) ()안은 군집분석이나 요인분석이 선행된 후 해당 분석이 실시된 경우 예) $\chi^2 \cdot t \cdot$ 분산의 셀에 10(4)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chi^2 \cdot t \cdot$ 분산 분석을 한 논문은 총 10편이며 그 중 4편은 군집분석이나 요인분석 후 $\chi^2 \cdot t \cdot$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의미임.

2) 총 295개의 분석논문 중 문헌연구(n=66), 프로그램(n=16) 논문의 경우는 특별한 대상이 없거나 대상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본 분석에서 제외함.

이 해당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하여 결국 최종 통계 분석방법을 해당 논문의 주된 분석방법으로 간주하되 군집·요인·판별 분석을 이용한 논문을 ()안에 덧붙여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적 분석방법이 93.4%, 질적 분석방법이 6.7%로 대부분의 경험연구 논문이 양적 분석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별로 살펴보면 총 14편의 질적 논문 중 대부분(12편)이 후반기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양적 연구의 축적에 따른 질적 연구의 보완 움직임이 뚜렷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적 분석 중 대부분인 95%의 논문에서 주된 혹은 최종 분석방법으로 추리통계를 사용하였으며 5.0%만이 기술통계를 주된 분석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리통계 분석 중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연구(회귀분석, 경로분석, Logit·Probit·Tobit 분석 등)가 12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회귀분석을 이용한 논문이 85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chi^2 \cdot t$ ·분산 분석을 사용한 논문이 48편이었고 그 중 군집분석이나 요인분석이 선행된 경우가 14편이었다. 경로분석을 이용한 논문은 후반기에 현저히 감소한 반면, Logit·Probit·Tobit 분석 등을 이용한 논문이 후반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경험적 연구의 연구주제에 따른 자료분석방법 경향

경험적 연구의 연구주제에 따른 자료분석방법에 대한 논문게재편수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든 대분류 영역에서 질적 분석 방법 보다는 양적 분석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관리이론에 관한 연구 중 생활의 질과 관리체계 및 가정관리행동 부분에서 경험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많았다.

관리대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험적 연구가 가계경제·재무관리 부분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었으며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분석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은 가운데 기술통계나 $\chi^2 \cdot t$ ·분산 분석 등을 사용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었다. 생활시간 관련 연구의 경우 인과관계 분석에 비해 기술통계나 $\chi^2 \cdot t$ ·분산 분석 등을 이용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리실천 분야에서는 건강가정 영역에서는 기술통계나 $\chi^2 \cdot t$ ·분산 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가족기업·제택근무 영역에서는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 경향

논문의 시대별 연구대상⁴⁾ 경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을 위해 연구대상을 일반가정과 취약가정으로 구분하고 일반가정에는 기혼, 기혼+미혼, 대학생, 청소년, 아동, 부모+자녀로, 취약가정은 일반가정을 제외한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 노인, 농촌, 조선족, 탈북인, 한국이민자, 장애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총 213편의 논문 중

4) 본 연구의 흐름상 연구대상에 관한 분석도 연구주제나 연구방법에 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시대별, 연구주제별로 이루어져야하나 시대별 분석만 수행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을 연결한 표가 매우 복잡해져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지면의 한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힌다. 이에 대하여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표 7〉 연구대상별 논문게재편수

(단위: n(%))

분류			'97~'02	'03~'08	총계		
일반 가정	기혼	부인	취업	7	5	12	(5.6)
			미취업	2	6	8	(3.8)
			취업+미취업	31	13	44	(20.7)
		남편	맞벌이	1	2	3	(1.4)
			취업+미취업	3	3	6	(2.8)
	기혼+미혼	여		4	4	(1.9)	
		남		3	3	(1.4)	
		남+여	10	32	42	(19.7)	
	대학생		3	10	13	(6.1)	
	청소년		2	4	6	(2.8)	
	아동			1	1	(0.5)	
	부모+자녀	모+자녀			1	1	(0.5)
		부모+자녀	3	2	5	(2.3)	
소계			79	101	180	(84.5)	
취약 가정	한부모			2	2	(0.9)	
	저소득층			2	2	(0.9)	
	다문화			2	2	(0.9)	
	노인	8	9(4.2)	1(0.5)	17(8.0)	1(0.5)	
	농촌	2	1(0.5)		3(1.4)		
	조선족	1			1	(0.5)	
	탈북인	1			1	(0.5)	
	한국이민자			1	1	(0.5)	
	장애인			1	1	(0.5)	
소계			12	17	29	(13.6)	
기타			-	4	4	(1.9)	
총계			91	122	2131	(100.0)	

주: 1) 총 295개의 분석논문 중 문헌연구(n=66), 프로그램(n=16) 논문의 경우는 특별한 대상이 없거나 대상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본 분석에서 제외함.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84.5%(180편)로 대부분이었으며,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3.6%(29편)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기혼부부세대(부인 혹은 남편 혹은 부인과 남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혼과 미혼을 함께 대상으로 한 연구가 27.2%, 자녀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학생, 청소년, 아동)가 11.1%,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함께 대상으로 한 연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 중 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4편, 부인과 남편을 모두 대상으로 한 연구가 38편, 남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으로 대부분이 부인을 포함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남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적으로 전반기(61편)에 비해 후반기(44편)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감소폭이 큰 것(전반기: 40편, 후반기: 24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남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에 불과한 것은 그동안 ‘가정’이 전적으로 혹은 1차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왔기 때문에 가정을 연구하는 본 학문에서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여성과 남성을 함께 다루어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이에 비해 남성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부부가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하는 현실로 바뀌었고 이에 반응하여 정부의 정책도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큰 흐름 중 하나는 부인 측면에서는 일 영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남편 측면에서는 가정생활 영역으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잘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 가운데, 이제 남편도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남편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연구들은 기혼자만 대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기혼자와 미혼자를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때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시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취업과 미취업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일반 가정의 경우 질적으로 다른 두 대상을 동시에 포함시켜 비교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다룬 연구(154편)에 비해 부모자녀를 함께 다루거나(6편) 아동, 청소년, 대학생 등 자녀세대를 다룬 연구(20편)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수행되었지만,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후반기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모자녀를 함께 다룬 논문은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그 숫자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추측컨대 두 세대를 통합하는 논문은 연구방법등에서 한 세대만을 연구하는 경우보다 복잡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을 잘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를 축적하게 된다면 세대간 영향관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인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인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정들은

5) 노인 인구는 1990년 2,195천 명(전체 인구의 5.1%), 2000년 3,395천 명(7.2%), 2005년 4,367천 명(9.1%)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한부모 가구의 경우 1995년 959,972천 가구(전체 가구의 7.4%)에서 2000년 1,123,854천 가구(7.9%), 2005년 1,369,946천 가구(8.6%)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손 가구도 1995년 35,194가구에서 2000년 45,225가구, 2005년 58,101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구와 관련하여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가 1997년 12,448건(총 결혼 건수의 3.2%)에서 2000년 12,319건(3.7%), 2005년 43,121건(13.6%)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2005년 현재 총 결혼 건수 대비 국제 결혼 13.6% 중 외국인 아내인 경우가 9.9%)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포털(stat.mw.go.kr.) 가족정책관련 통계자료).

경제적 측면, 정서적 측면 등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분석할 때 일반 가정과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전술한 가정을 취약 가정으로 분류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취약 가정을 다룬 연구(29편)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180편)의 1/6 정도로 상대적으로 일반 가정 연구에 비해 적게 수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그동안 가족자원경영학의 주된 관심이 일반가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1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인구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노인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의 결과를 살펴보면 후반기에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논문 편수가 미미한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의 1997년 창간호부터 2008년 12월 발행된 12권 4호까지

12년간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경험적 연구의 자료분석방법, 연구대상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제까지의 분석 내용 중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보완해야 할 점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발전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고자 한다.

1)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

우선 이론을 형성하고 정교화하거나 재정립하는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변수 간 관계에 근거하여 현실을 설명하는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가정이나 건강가정 등과 관련된 주제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도입하면서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이론을 세우며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그 외 대부분은 경험적 일반화를 도출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변수 간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 자체가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이론을 수정 및 재구성하면서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역시 그 의미가 클 것이다. 그러나 후자와 같은 연구가 풍성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이유 중 하나로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반증 가능성 높은 대담한 가설(칼 포퍼, 이정전, 2003)을 시도하

6)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2005년 현재 30.0%(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머지 70.0%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문제라고 답한 조사(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황은숙, 2006, 2007)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74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되는 생활비는 105만원으로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매월 약 10만 원 미만(44.3%)의 생활비를 빌리며, 부채는 평균 1천6백만 원 정도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은숙, 2008). 다문화 가정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중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율이 절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빈곤도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인숙 외(1996)의 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한 대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해석할 때 가치판단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지나치게 얽매이기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험적 연구 결과를 해석하다 보면 실수는 없지만 발전 또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엄밀한 통찰력에 기반한 가치판단적 해석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연구가설들로 현상의 검증을 넘어서 인식과 가설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이다(공인숙 외, 1996).

두 번째로 연구주제에 기반한 학문영역의 정체성에 관하여 논의해 보면,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주제는 대부분이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연구로 이루어졌지만 일부 소비자학, 아동학, 가족학, 주거학 분야의 논문도 게재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가 가정학의 다른 하위 전공과는 구별되는 학회로 출발하였음을 뒤돌아볼 때 학회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은 가족자원경영학이라는 세부 전공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학회지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학문간 경계를 허무는 통섭적 연구가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의 논문을 이 분야의 논문으로만 한정 짓는 것은 학문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특히 실천 영역인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는 가족자원경영학뿐 아니라 가족학, 아동학, 소비자학 등 타 영역의 내용이 통합되었을 때 교육대상자의 요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왔던 주제나 대상·만을 분석한 논문은 배제하고 우리 분야와 타분야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분석된 논문은 적극적으로 게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가족자원경영학의 고유성은 잃지 않되 우리 학문분야의 외연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시의적 연구와 함께 긴 호흡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시의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사정에 알맞은'이라는 뜻을 연구 흐름에 적용해 보면 그 시대에 알맞은 주제를 적절한 시기에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어떠한 주제는 한 시기에 적절했다 하더라도 시대가 원하지 않는 주제로 변화될 수 있고 따라서 자연히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주제를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특정 주제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가정과 관련된 연구주제는 가족자원경영의 원리를 공공가정에 적용시키면서 이에 관한 개념을 가족자원경영학에 처음 도입함으로써 우리 분야의 연구영역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건강가정 영역을 연구하는데 있어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가정 관련 연구가 '시의적'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공공가정'의 한 형태로 보아 이를 관련 짓는 연구 등이 가능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그 주제는 아직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연구 양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어렵게 도입된 연구영역이 확실한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리실천 연구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된 프로그램 연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연구였으며 논문에 게재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적었다. 따라서 논문에서 실천을 위해 제안된 프로그램인 만큼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후속 절차가 이루어질 때 '실천' 연구로서의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초기에는 프로그램 제안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연구를 현실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천 측면에서 일반 가정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과서에 반영될 교육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도 학문의 현실 반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2)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방법에 있어 양적 연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심층면접이나 사례연구 등을 통한 질적 연구는 최근 5년 전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황이다. 물질의 양적 풍요가(이후)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한다는 다니엘 핑크(2005, 김명철 역, 2006)의 말에서처럼, 대량자료와 통계 분석에 바탕한 양적 연구의 풍요는 연구 대상의 독특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는 질적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는 이제 양적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된 만큼 질적 분석방법을 이용

한 연구에 주목하여 양적 분석방법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생활의 질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험연구의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 개별적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된 연구가 많았다. 개별 설문조사는 자료수집 비용(시간, 금전 등) 문제와 더불어 표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에서 이미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한계는 표집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수집한 2차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2차 자료가 이용되고 있으나 가계경제·재무관리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차 자료에 포함된 변수 구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족자원경영학 영역에서 주제로 삼아 연구하기에 적절한 변수들을 적극 찾아내어 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결과는 정책 제안 시 유리할 것이고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므로 현실 기여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험연구의 자료분석방법을 기술분석과 추론분석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술분석은 추론분석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기술분석 자체가 현상이나 실태를 있는 그대로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음에도 추론분석의 다양한 통계기법에 밀려 그 가치가 적절히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재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2차 자료를 연구 자료로 이용할 때 기술분석 만으로도 충분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추론분석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경우는 깊은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분석 만을 통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대상에 대한 논의

우리 학문 분야에서는 전형적이고 일반적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취약 가정에 대한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는 노인 가정을 제외한 다른 취약 가정에 대해서는 그 연구의 양이 매우 적었다. 양적 증가현상과 함께 질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최근 특히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이외의 민간 영역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실질적 도움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취약가정에 대한 연구가 좀더 풍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족구성원 측면에서도 전통적으로 주부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연구와 함께 자녀세대나 노인세대를 포함한 연구, 가정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남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들로 그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전형적 대상에 대한 연구의 맥을 잃지 않되 다양한 가정과 구성원으로 연구 대상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2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흐름을 파악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수행하였다. 따라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보다는 논문 편수에 근거한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논문의 실질적 '내용'에 근거한 깊이 있는 분석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이라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세한 내용분석을 시도하지 않았으나 본 논문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에서의 특정 영역만을 다루거나,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방법, 연구대상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공인숙(1996). "기술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인간으로". 대한가정학회 제49차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집.
- 2) 다니엘 핑크(2005, 김명철 역, 2006).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한국경제신문.
- 3) 보건복지가족부(2008). 가족정책관련 통계자료.. <http://stat.mw.go.kr>.
- 4)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http://stat.mw.go.kr>.
- 5) 이기영, 조희금, 황덕순, 김순미, 김기옥, 윤정혜, 이경희, 김선중, 홍형옥, 김태현, 신화용, 한경혜, 조복희, 박성연, 이옥(1993). 가정관리학과 교과모형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219-230.
- 6) 이승미(2007). 가족자원관리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립30주년 기념 특별호, 83-92.
- 7) 이정전(2003). 가정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경제. 대한가정학회지 41(9), 179-190.
- 8) 정순희(2007). 소비자학 분야 연구동향과 전망: 한국가정관리학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립30주년 기념 특별호, 49-64.
- 9) 정영금(2000). 가족자원관리학 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 231-241.
- 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kosis.kr/domestic/research/do02-index.jsp>.
 - 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www.kosis.kr/domestic/research/do02-index.jsp?tab=09&listid1=1000>.
 - 12) 황덕순, 한경미, 홍은실(1995).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한가정학회지 논문 내용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 17-30.
 - 13) 황은숙(200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 비교연구. 한부모가정연구 2(1), 1-20.
 - 14) 황은숙(2006).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연구. 한국한부모가정연구 1(1), 1-40.
 - 15) 황은숙(2008).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 기념학술대회자료집, 23-45.
- 투 고 일 : 2009년 7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8월 24일